

학교신화¹⁾

페루 인류학자 알레한드로 오르티스 레스카니에르(Alejandro Ortiz Rescaniere)가 돈 이시드로 와마니라는 노인에게 채집한 이야기이다. 알레한드로 오르티스 레스카니에르는 이 신화 속의 잉카를 문화영웅으로 규정한다. 말을 가르치고, 마마 파차와 함께 농경과 목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면 예수는 문화를 파괴하는 자로 규정한다. 각각 어둠과 야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달과 퓨마의 도움을 받았으며, 문화영웅 잉카와 마마 파차를 축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예수에게 결정적인 힘이 된 문자는 반(反) 문화적 상징이 된다. 이는 정복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시각이다. 1532년 아타왈파를 생포하기 위한 기습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사제 발베르데가 홀로 나서 아타왈파에게 성경(혹은 기도서)을 내밀며 가톨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사건이 문자를 정복의 도구내지 침병으로 간주하는 원주민들의 인식을 낳은 것이다. 아타왈파가 성경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기독교 모독죄로 몰려 생포, 처형되는 장면이 『비극 아타왈파의 최후』에도 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시각은 안데스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다. 위의 텍스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채집자는 나우파 마추가 잉카와 파차 마마의 두 아들을 ‘학교’라는 산으로 유인한 이유가 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였다고 돈 이시드로 와마니에게 들었다고 말한다. 이에 잉카의 두 아들은 도망쳤고, 그 때문에 원주민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일개 신화에 의거하여 학교라는 교육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잉카의 큰아들이 돌아오는 날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말하면서, 원주민 아이들이 그를 찾아내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주민 아이들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학교 교육을 아직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 정체성을 말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채집자의 분석이다. 학교 교육이 지배자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된 안데스의 역사를 학교라고는 한 달 밖에 다니지 않은 촌로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1) 출전: Juan M. Ossio A.(ed.), *Ideología Mesiánica del Mundo Andino*, 2nd ed., Lima, Ignacio Prado Pastor, 1973, pp. 237–243.

하늘과 바다의 전능하신 신께서 마마 파차²⁾의 육신인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대지모신의 모발과 입, 눈, 숨결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리마처럼 말 많은 동네가 존재합니다. 그분의 눈에서 나온 동네도 있기에, 그곳 사람들은 멀리까지 보고, 이교도들의 시대³⁾에 일어난 일도 보고, 뜨거운 계곡 밑바닥이나 하늘 가까이 있는 고원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지요.

“그러면 페루는요?”

페루는 우리 대지모신의 음부인 티티카카 호수에서 시작해서 이마인 키토에서 끝납니다. 사람들은 리마가 그분의 입이고 쿠스코가 그분의 약동하는 심장이라고들 합니다. 그분의 혈관은 강이고요. 하지만 마마 파차는 훨씬 더 커서 아주 멀리까지 이릅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아마 스페인 일 것입니다.

리마는 그분의 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어떤 페루 사람도 우리의 언어⁴⁾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신께서 세상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는데, 바로 잉카와 수크리스투스(예수그리스도 혹은 예수)입니다.

잉카께서 “말하거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식들에게 말을 가르쳤지요. 잉카께서 마마 파차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청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경작을 배웠습니다. 야마와 소들이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당시는 풍요로운 시절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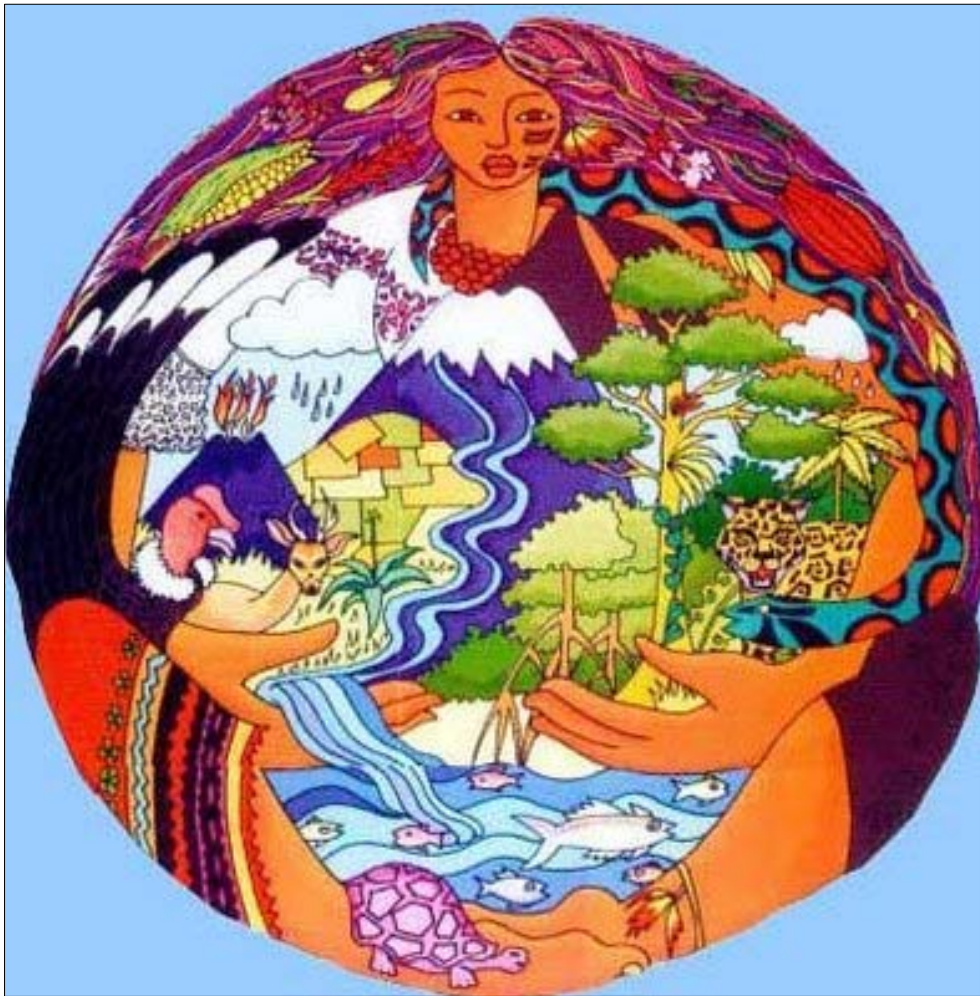
“요즘처럼 말인가요?”

위라코차⁵⁾인 나리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럴 겁니다. 선생님이 저보

2) ‘마마’ (mama)는 어머니, ‘파차’ (pacha)는 대지 혹은 세상, 나아가 우주를 의미한다. 마마 파차 대신 파차마마로 불리기도 하는 대지모신(大地母神)은 잉카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안데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긴다—옹긴이.

3) 아메리카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 시대를 가리킴—옹긴이.

4) 원주민어를 가리킴—옹긴이.



마마 파차

다 많이 아시고, 세상의 입에 사시니까요. 우리는 마마 파차와 다투게 되었었고, 이제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잉카께서 쿠스코를 창건하셨는데, 전부 돌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리마는 진흙으로 되어있다고 하고요. 나리는 리마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리막이라는 구역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잉카께서는 쿠스코에 터널을 만드셨죠. 이 터널을 통해 잉카께서 우리의 대지모신을 찾아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

5) 여기서는 백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됨—옮긴이.

고, 선물을 가져다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탁을 하셨습니다.

잉카께서는 마마 파차와 결혼하셨습니다. 자식이 둘이었지요. 둘 다 예쁜 아이지요. 두 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터널 속을 걷고 계신지 아니면 리마의 대성당에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나리, 나리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나요?

그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에게는 엄청난 분노와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이미 장성해서 젊은데다가 힘도 썩기 때문에, 맏형인 잉카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말하곤 했지요. 그 모습에 달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하고 글씨가 적힌 쪽지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맞아, 이거면 잉카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수가 생각했지요. 어두침침한 평원에서 예수가 그 종이를 잉카께 보여주었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잉카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그림들은 뭐지? 동생의 속셈이 뭘까?” 잉카께서는 멀리 달아나버리셨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잉카를 붙잡을 수 있을까? 분명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예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퓨마는 가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고 말하고는 크고 작은 모든 퓨마를 불러 모았습니다. 퓨마들이 잉카를 뒤쫓았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리마의 사막에 이르렀습니다. 잉카께서 계곡으로 식사를 하시러 갈 때마다, 퓨마들이 그분을 쫓아 버렸습니다. 잉카께서는 허기로 죽어가셨답니다.

잉카께서 아무 것도 못하시게 되자, 예수그리스도는 대지모신을 때리고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사랑하십니다.

잉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냐우파 마추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잉카가 세상을 활보할 때, 냐우파 마추는 숨어 지내는 신세였거든요.

냐우파 마추는 ‘학교’ 라는 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마 파차가 두들겨 맞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잉카의 두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고 있었지요. 냐우파 마추가 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온, 이리 오라니까. 잉카가 어디 있는지, 마마 파차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테니.”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이 ‘학교’로 갔답니다. 냐우파 마추는 그들을 먹여치우려고 했습니다. “마마 파차는 더 이상 잉카를 사랑하지 않아. 잉카는 예수그리스도와 친해져서 지금은 둘이 함께 산단다. 형제처럼 말이야. 이 글을 봐, 여기 적혀 있잖니.” 잉카의 자식들은 몹시 겁을 먹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아이는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마 파차의 두 자식처럼, 거의 모든 아이가 학교 가는 걸 싫어해서 도망을 친답니다.

잉카의 두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큰아들이 자라면 되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잉카의 큰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 잉카의 아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리마에 있을 수도 있고, 쿠스코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지 못하면 그의 아버지이신 잉카처럼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죠?

[강성식 옮김]

강성식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외래교수